

【논문】

1920년대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만주 지배* —광산과 삼림 자원을 중심으로—

송인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20세기 초 제국들의 만주 지역 자원 개발 경쟁
- III. 봉천 군벌의 광산 및 삼림 자원 개발
- IV.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지역 지배 강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20년대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만주 지역 통치의 상관성을 규명하려는 논문이다. 20세기 초 만주 지역은 광산 자원과 삼림 자원을 두고 청, 러시아, 일본의 경쟁이 심화한 곳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주 지역에서 자립한 봉천 군벌 정권은 만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주 지역의 광산과 삼림 자원을 개발하였다.

봉천군벌의 자원 개발은 러시아, 일본의 만주 진출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중외합판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서도 본계호 탄광에서는 중국인의 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고, 만주 여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인 상인들과 협력하여 광산을 개발하였다. 또한 압록강과 송화강 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의 삼림 이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1928년에는 자체적으로 <삼림조례>를 제정하여 삼림 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또한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은 만주 지역 사회의 근대적 발전과 행정력 정비를 이끌어 냈다. 봉천 군벌 시기 추진된 자원 개발은 본계호 일대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 (NAHF-2023-기획연구-28)

**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흑룡강 학강 일대에 인구가 집결하여 새로운 공업 도시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고, 봉천 군벌 정권은 이러한 과정에서 현을 설치하고 도로망을 구축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행정력을 강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봉천 군벌 시기 자원 개발은 근현대 만주의 발전 과정에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주제어: 봉천군벌, 광산, 삼림, 장작림, 자원개발, 만주

I. 머리말

봉천 군벌(奉天軍閥)¹⁾은 1910년대부터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1931년까지 지역적으로는 봉천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인적으로는 장작림(張作霖)-장학량(張學良) 부자를 중심으로 만주 지역 주민들이 기반이 된 정권이다. 봉천 군벌 정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만주의 마적(馬賊) 세력으로 보거나 일본과 결탁하여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과 대립한 중국 근대의 지방 할거 정권으로 인식하는 논의도 있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중국 국민당 정권, 소련, 일본과 함께 독립 정권으로 인식하는 논의도 있다.²⁾

봉천 군벌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봉천 군벌 정권이 20세기 만주라는 공간에서 등장하였고, 만주 지역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봉천 군벌 정권은 그들이 내걸었던 ‘봉천

1) 봉천 군벌(奉天軍閥, Fengtian Clique): 장작림-장학량 부자가 중심이 되어 1919년부터 1931년까지 만주 지역을 통치한 군벌 정권을 지칭하는 단어는 ‘봉천군벌’, ‘봉계군벌(奉系軍閥)’, ‘장씨 정권(張氏政權)’, ‘장작림 군벌’, ‘장학량 군벌’, ‘만주군벌’, ‘동북군벌(東北軍閥)’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군벌이 봉천 지역을 정치적 근거지를 둔 군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적 성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봉천 군벌 정권’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2) Chi Man Kwong, 2017, *War and Geopolitics in Interwar Manchuria: Zhang Zuolin and the Fengtian Clique during the Northern Expedition*, Brill.

사람이 봉천을 다스린다.(奉人治奉)'이라는 슬로건처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고 만주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봉천 군벌 정권의 정책들은 청말부터 진행된 만주 지역의 근대화를 계승한 것이고, 이후 만주국 정권에도 적지 않게 계승되었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근현대사를 서술할 때, 봉천 군벌 정권 시기를 단순히 청과 만주국의 과도기로만 평가하기보다는 하나의 독자적인 시대로 봐야 하고, 봉천 군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1920년대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변경 정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전후로 만주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삼림, 광산 등의 자원의 보고(寶庫)로 새롭게 알려지면서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청조 역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만주 진출과 자원 개발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 주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³⁾ 청조 멸망 후 뒤이어 만주 지역에서 대두한 봉천 군벌 역시 자신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권 개입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광산, 삼림 등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은 만주 지역 자원 개발의 역사적 흐름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봉천 군벌이 자원 개발을 매개로 지방에서의 정권의 권력 침투를 어떻게 시도했는가를 규명하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 군벌 정권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봉천 군벌 시기에 이루어진 광산과 삼림 자원 개발 연구는 청말 이후부터 이루어진 중국 근현대 자원 개발의 역사에서 이 시기를 잠깐 다루는 정도에 불과하다. 봉천 군벌의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봉천조병창 등을 중심으로 한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⁴⁾ 장작림의 참모이자 재정관료인 왕영강(王永江)의 재

3) 청말 만주 지역에서의 '자원 주권' 보호와 광산 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송인주, 2023, 「청말 동북 변경 재구축과 광무(鑛務), 1860~1911」,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2~194쪽을 참조할 것.

4) 봉천조병창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名古屋眞, 2012, 「東三省兵工廠から奉天造兵所までの変遷」,

정정책이나,⁵⁾ 봉천표(奉天票)의 유통⁶⁾ 등에 집중되어 있고,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다.

본고는 위와 같은 봉천 군벌 정권의 자원 개발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1920년대 봉천 군벌 정권의 만주 자원 개발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전후로 만주 지역은 삼림 자원과 광산 자원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중심으로 봉천 군벌이 만주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고자 했는지, 자원 개발을 통해 만주 지역의 변경 사회에 어떻게 권력을 침투시키려고 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II. 20세기 초 제국들의 만주 지역 자원 개발 경쟁

20세기 초 만주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정세 변동을 겪고 있었다. 1850년대까지 만주 지역은 청 제국의 동북 변경이자 제국의 지도층인 황실과 만주인의 발상지로 특수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청 조는 이 지역으로의 한인(漢人)의 이주와 정착, 경작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담배, 가죽, 인삼, 삼림 자원 등은 청 황실과 만주인들의 경제적 독점 물품으로 보호받았다.⁷⁾ 하지만 청 제국 내에서 만주 지역의 특수 지위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러시아, 일본 등의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로 붕괴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을 계기로 요하 하구의 영구(營口) 항이 개항되었고, 우수리강 이동 지역은 러시아의 연해

『銃砲史研究』 373가 있다.

- 5) 봉천 군벌 정권 시기 왕영강의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Ronald Suleski(薛龍), 2012, 『張作霖和王永江: 北洋軍閥時代的奉天政府』, 中央編譯出版社; 王鳳傑, 2014, 「王永江與奉天省警政早期現代化」, 『北方文物』; 劉俊良, 2017, 「王永江與東北金融業的發展」, 『長江叢刊』; 王莉, 2019, 「論王永江財政金融改革對奉系軍政發展的影響」, 『浙江工商職業技術學院學報』 등이 있다.
- 6) 봉천 군벌 시기 화폐 정책과 봉천표(奉天票) 발행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郭志華, 2011, 「1920年代後半東三省における「奉天票問題」と奉天軍閥の通貨政策の轉換 為替構造と「大連商人」の取引実態を中心に」, 『アジア経済』 52; 董昕·조정은·홍영미, 2012, 「奉天軍閥 시기의 東三省 화폐제도」, 『만주연구』 13 등이 있다.
- 7)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226~227쪽.

주로 편입되었다.

만주 지역이 1860년대 전후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만주 지역의 풍부한 자원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만주의 중심부인 봉천의 경우에는 석탄과 철, 만주의 동부 지역인 길림과 북부인 흑룡강 지역은 금, 은 등의 광산 자원과 삼림 자원의 보고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만주 지역의 풍부한 자원은 당연히 자원 개발을 통해 부국강병을 꿈꾸던 '제국'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 결과 19세기 중엽 이래로 만주 지역은 '제국'들의 자원 개발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만주 지역의 자원에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제국'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850년대 전후로 흑룡강 하류와 우수리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57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서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 지역을 청으로부터 할양받았다.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러시아가 주목한 만주의 자원은 금광이었다. 1850년대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가 발생하면서,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 동부-만주-한반도 동북으로 이어지는 금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흑룡강 상-하류에 '아무르 채금 회사'를 건설하고 러시아인들의 흑룡강 유역 이주와 금광 채굴을 독려하였다.⁸⁾ 러시아인들의 채금은 흑룡강, 우수리강, 두만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청의 최북단 변경인 흑룡강 중상류 막하(漠河)에서는 러시아와 청의 한인(漢人) 유민들이 결탁하여 채금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1882년~1883년 막하 금광의 금 산출량은 약 22만 량에 달하였다고 한다.⁹⁾

러시아의 만주 지역 자원 개발에 속도를 더한 것은 1898년부터 추진한 동청철도의 부설이었다. 러시아는 재무장관 비테의 건의에 따라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였고, 1898년에는 이를 연장하여 만주리부터 여순까지 이르는 동청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동청철도를 부설하면서 만주 일대의

8) Victor Zatspeine,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p.62.

9) 門倉三能, 1936, 『北滿金鑛資源』, 東京: 丸善株式會社, 18쪽.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동청철도 당국은 1895년 러-청 밀약을 통해 확보한 동청철도 부속지를 중심으로 부속 삼림을 설정하여 삼림을 개발하였다.^(표 1) 1911년의 조사에 의하면 동청철도의 조차지 부속림은 20만 8천 헥타르였고, 동청철도의 지선이 확장되면서 연간 침목 소비량이 250만 석에 달하기에 이르렀다.¹⁰⁾ 또한 러시아는 1896년 아관파천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삼림채벌권도 획득하면서 러일전쟁 시기까지 만주 남부와 한반도 북부의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표 1〕 동청철도 부속지 삼림 목재 채벌 수량

연도	원목(m ³)	침목	판재(m ³)
1916~1917	6,109	28,206	20,997
1917~1918	12,231	19,659	30,573
1918~1919	10,353	75,854	62,388
1919~1920	14,788	49,584	104,804
1920~1921	24,039	149,436	145,135
1921~1922	44,930	72,743	72,918
1922~1923	42,359	21,880	73,321
1923~1924	28,060	29,978	174,105
1924~1925	35,683	106,672	301,916
1925~1926	27,220	4,883	333,071
1926~1927	61,341	37,248	321,535
1927~1928	80,724	127,008	407,988
1926~1929	86,858	54,739	424,754

王長富, 『沙皇俄国掠夺中国东北林业史考』, 吉林人民出版社, 1986, 63쪽

러시아를 뒤이어서 만주 지역의 패권을 잡은 '제국'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에 대한 개발에 나선 것은 러일전쟁의 전후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돌입하기 전부터 육군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의 지리와 여러 자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¹¹⁾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남만

10) 安富歩, 2009,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46쪽.

11) 러일전쟁 전후로 일본 육군에서는 만주 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滿洲地誌』를 편찬하

주철도를 관리하기 위해 1907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을 창설하였고, 그 이후에는 만철을 통해 만주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만철 산하에 창설된 중앙시험소와 지질조사소를 중심으로 일본의 남만주 자원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¹²⁾

만철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주요 개발 자원은 바로 석탄이었다. 일본은 특히 무순 탄광을 중심으로 한 요동반도 지역의 탄광 개발에 주력하였다. 무순 탄광은 19세기 말 청의 상인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1901년 의화단 사건 진압을 빌미로 러시아 군이 잠시 점령했고,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다시 일본에 양도되었다. 무순탄광은 개발 시작 단계에서 석탄 매장량이 10억 톤으로 추산되었고, 러일전쟁 시기부터 만철이 개발하기 직전인 1907년까지의 채굴량도 총 23만 톤이었다.¹³⁾ 만철이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무순은 ‘석탄의 도시’라고 불리면서 당시 동아시아 굴지의 탄광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만주국 시기인 1935년 무순 탄광의 채탄량은 노천굴과 갱내굴을 합하여 총 758만 톤이었다.¹⁴⁾ 이와 같이 무순 탄광은 안산의 제철소와 함께 1945년까지 일본의 만주 경영을 지탱하는 핵심 공업 지대였다.

일본은 석탄뿐만 아니라 금과 은 등 만주 지역의 다른 광물과 삼림 개발에도 적극적이었다. 청이 1890년대부터 관판으로 채굴하고 있었던 두만강 유역 연길의 천보산 은광에 대해서도 중화민국 정부를 압박하여 중일합판 형식으로 채굴권을 양도받았고, 청말부터 백두산 인근에서 한변외라는 금비 가문이 경영하던 협피구 일대 금광의 경영권도 1918년 중화민국 정부를 압박하여 양도받았다. 또한

였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支那鉱山關係雜件 滿洲ノ部』(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라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관동도독부에서는 1918년 『滿蒙及支那ニ於ケル鉱産調査摘要』 등의 광산보고서를 남겼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도 『滿洲の鑛業』(滿鐵經濟調査會第1部 編, 1933, 滿洲文化協會), 『吉會予定線地方鉱山調査報告』(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務部調査課 編, 1931, 南滿洲鐵道), 『南滿洲ニ於ケル帝國ノ鑛業權』(1914, 南滿洲鐵道鑛業部鑛務課), 『露領極東の鑛産』上, 下卷(南滿洲鐵道 庶務部調査課 編, 1927, 大阪毎日新聞社, 東京日日新聞社) 등의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12)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만철: 일본의 싱크탱크』, 산치림, 52~54쪽.

13)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2002, 위의 책, 59쪽.

14)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제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33.

남만주 지역의 삼림 자원에 대해서도 1909년 이래로 만철과 조선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서 면밀한 조사와 개발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전을 계기로 압록강 유역 삼림의 채벌권을 확보하여 중국 정부와 합판 방식으로 압록강채목공사를 설립한 이후로, 길림성 동부 삼림에 여러 개의 임업회사를 설립하여 삼림 자원을 채벌하였다.

청조는 만주 지역에서 흥기한 제국으로 19세기까지 만주 지역을 자신의 발상지로 중요시하고, 이 지역에서 봉금 정책을 실시하여 모피, 인삼, 민물진주 등의 산물들을 황실과 만주 기인의 전유물로 독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860년 북경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와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진출과 한인 유민들의 ‘툼관동’¹⁵⁾으로 청조의 전통적인 만주 지역 봉금 체제는 붕괴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청조 역시 만주 지역의 광산과 삼림 등 새로운 자원의 관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은 1901년부터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한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신정(新政)을 추진하였다. 청조의 신정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의 자원 관리를 위한 법안과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청조는 신정의 과정에서 농업과 임업, 광업 등 각 분야의 실업 진흥을 위해 농공상부(農工商部)를 설치하는 한편, 광산 자원을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1907년 『대청광무장정』을 반포하였다. 또한 1908년부터는 지방의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 성(省)에 권업도(勸業道)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¹⁶⁾

청말 만주 지역에도 1905년부터 동북 신정이 추진되면서 행정적으로 팔기 장군을 정점으로 한 군부 체제가 폐지되고 중국 내지와 같은 성-주현 체제가 확립되는 등 청조의 만주 통치 체제가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만주 지역의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되었고, 이를 뒷받침 할 봉천, 길림, 흑룡강 등

15) 툼관동(圖關東): 1860년대 이후로 산둥과 하북 지역의 한인(漢人) 농민들이 대거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이다. 중국에서는 ‘좡관동(chuang-guandong)’이라고 표현한다.

16) 청말 광서 신정기 상부 및 농공상부의 설치 과정과 산업 행정 구축에 대해서는 劉世龍, 2002, 『中國의工業化と清末の産業行政—商部·農工商部の産業振興を中心に』, 溪水社를 참조할 것.

지에 실업 관리 기구가 설치되었다. 1905년 무렵에는 만주 지역 광산 조사와 개발을 위해 봉천, 길림, 흑룡강 지역에 광정조사국이 설치되었다. 1908년~1909년 봉천과 길림에는 권업도가 설치되었다. 흑룡강성의 경우에는 권업도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제학사가 설치되었다.¹⁷⁾ 권업도 산하에는 농업, 임업, 광업 등 여러 산업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었다.

청의 만주 지역 자원 개발은 러시아와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주 지역 이권 개입으로 차질을 빚었고, 신정이 추진된 지 얼마 못 가서 신해혁명으로 왕조가 종언을 고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일 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광정조사국과 권업도의 설치와 활동을 통해서 만주 지역에서의 청조의 산업 진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광업 부문에서 청조 당국이 광산을 새롭게 조사하고 민간 상인들의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191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대략 617곳의 광산이 개발되고 있었다.¹⁸⁾ 삼림에 대해서도 1907년 청의 동삼성 당국은 「임업개발관리규칙」을 공포하고 길림에 임업총국(林業總局)을 두어 길림 일대의 삼림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비하였다. 또한 1908년 이후 농림학당, 종수공소(種樹公所) 등을 창설하여 서구의 삼림보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¹⁹⁾

20세기 초반 봉천 군벌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위와 같이 만주 지역은 '제국'들의 자원 개발 경쟁의 무대였다. 러시아와 일본, 청조 모두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과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봉천 군벌 정권 역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만주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 지역의 자원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17) 송인주, 2023, 「청말 동북 변경 재구축과 광무(鑛務), 1860~1911」,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0쪽.

18) 孔經緯 主編, 1990, 『清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397쪽.

19) 安富步, 2009,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50쪽.

Ⅲ. 봉천 군벌의 광산 및 삼림 자원 개발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멸망하면서 중국에는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부가 들어섰다. 청 제국 이후의 중국근현대사 서술은 대체로 손문-장개석으로 이어지는 국민당 중심의 서술이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시작부터 원세개를 중심으로 한 북양정부와 손문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으로 분열하면서 중앙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고, 중국 각지는 군벌 세력이 난립하게 되었다. 만주 지역에서도 장작림(張作霖)을 필두로 한 봉천 군벌이 정권을 잡으면서 1931년 장작림이 폭사할 때까지 사실상 중국 내지와는 독립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봉천 군벌의 부상은 청말민초 만주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청대 만주 지역은 청 황실과 만주인의 발상지로 중시되었고, 청말 동북 신정에서도 한인 관료들이 주도한 중국 내지의 신정과는 다르게, 만주 기인들과 한군 기인 출신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다. 신해혁명 시기에도 만주 지역에서는 조이손(趙爾巽), 원금개(袁金鎧) 등 기인 출신 관료에 의해 혁명파가 숙청되었다.²⁰⁾ 그러한 만주 지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인 유민 출신이었던 봉천 군벌의 지도자 장작림은 봉천 일대에서 자위 조직인 보험대(保險隊)를 조직한 후 봉천의 기인 출신의 관료들과 협력하고 이들에게 무력을 제공하면서 성장하였다. 이후 1916년 중화민국 북양정부의 봉천독군 단지귀(段芝貴)를 축출하고 스스로 봉천독군이 되면서 봉천 군벌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후 1919년 길림과 흑룡강성까지 장악하고 동삼성순열사(東三省巡閱使)가 되면서 만주 지역에서 자립하게 되었다.²¹⁾

봉천 군벌은 청말 동북 신정 시기부터 만주 지역의 관료들이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을 계승하였고, 이는 자원 개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주 지역의 자원 관리와 개발의 측면에서 청말민초 만주 지역 관료들은 러시아와 일본의 강력한 자원 이권 침탈 속에서 최대한 청조 혹은 중국 측의 이권을 보호하고, 자체적으로 만주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장작림을 위시한

20) 澁穀由裏, 2017, 『馬賊の「滿洲」: 張作霖と近代中國』, 講談社, 111-116쪽.

21) 澁穀由裏, 2017, 위의 책, 125-132쪽.

봉천 군벌 정권도 이러한 청말민초의 정책 기초를 계승하여 그들 정권 나름의 자원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 등과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자체적으로 광산 자원과 삼림 자원 등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봉천 군벌은 만주 지역의 실업 진흥을 꾀하고 더 나아가서 군비 확충을 꾀했다.

장작림은 1919년 만주 전역을 장악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실업 진흥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신만의 정부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19년 8월 교육청과 실업청을 설치하였다.²²⁾ 이를 통해서 장작림의 봉천 군벌은 만주 지역의 자원을 장악하고 관리할 기구를 두게 되었다. 또한 그가 자체적인 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919년 12월 봉천성 의회는 전문 실업 인재 양성할 방안을 건의하였고, 1. 상업학교와 공업학교에 부설 실업 학습장을 설치할 것, 2. 각 현에 실업 학교를 설립할 것, 3. 이를 위한 자본을 마련할 것 등의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²³⁾

장작림은 또한 같은 달 18일에 「관리제도를 정돈하는 10개조」를 반포하면서 실업 진흥을 달성할 것(課實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1920년 4월에는 북경 정부에 실업 진흥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전보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중점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1. 동삼성 삼림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이 거액을 준비하여 편이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전에 중국과 일본이 합관하기로 결정한 광산 이권을 회수할 것, 3.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상업용 부두를 다수 열 것. 위와 같이 장작림이 만주 전역의 권력을 장악한 직후 실시한 조치들은 장작림의 봉천 군벌이 만주 지역의 실업 진흥과 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봉천 군벌 정권의 실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왕영강(王永江)이었다. 왕영강은 1871년 요동반도의 금주(金州)의 잡화상 출신이었고, 약국을 경영하였다. 청말 한군 기인 출신 엘리트 원금개(袁金鑑)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경찰행정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의 경무학당을 건립하였다.²⁴⁾ 1916년 원금개의

22) 胡玉海·襄蓉, 2005, 『奉系軍閥大事記』, 遼寧民族出版社, 208쪽.

23) 胡玉海·襄蓉, 2005, 위의 책, 214쪽.

추천으로 장작림 정권의 관료가 되었고 이후 장작림 정권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행정, 재정, 실업,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왕영강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봉천표 발행 등의 재정정책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역시 동삼성 지역의 실업 진흥과 자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1915년 7월 그는 장작림이 봉천성장이 되기 전부터, 자본금 200만 원을 모아서 ‘동삼성흥리공사(東三省興利公司)’를 창설하고 동삼성의 삼림, 광산, 은행 등의 실업을 관리할 것을 건의하였다.²⁵⁾ 또한 1925년 7월, 장작림은 왕영강에게 동삼성 정치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8가지의 주제를 토론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제 중 하나로 삼림의 채벌과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²⁶⁾ 이러한 점에서 봉천 군벌의 실질적 행정 책임자였던 왕영강도 만주 지역의 자원 개발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봉천 군벌 정권의 실업 정책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봉천조병소(東三省造兵所)를 중심으로 한 무기 생산, 철도 건설,²⁷⁾ 대두(大豆) 관련 산업²⁸⁾ 등의 정책들은 이미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광산과 삼림 개발을 중심으로 봉천 군벌 정권의 실업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청말 이래로 만주 지역의 광산과 삼림 자원은 ‘제국’들의 주요 이권 대상이자 만주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장작림이나 왕영강 등의 봉천 군벌 정권의 지도층도 광산과 삼림 개발을 실업 정책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1. 봉천 군벌 정권의 광산 개발

봉천 군벌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광산 개발은 요양의 본계호 탄광 개발이었다. 본계호 일대는 19세기 중엽부터 청 측 상인들에 의해 탄광과 철광이 개

24) 澁穀由裏, 2017, 『馬賊の「滿洲」: 張作霖と近代中國』, 120~121쪽.

25) 胡玉·襄蓉, 2005, 『奉系軍閥大事記』, 120쪽.

26) 胡玉海·襄蓉, 2005, 위의 책, 385쪽.

27) 봉천 군벌 정권의 철도 부설 관련 연구는 송한용, 2021, 「1920년대 동북군벌의 철도정책」, 『역사학연구』 27, 2006; 高韻茹, 「東北張氏政權の鐵道政策と日滿關係」, 『愛知論叢』 111; 趙微微, 2014, 「吳俊升主政時期黑龍江鐵路建設及其影響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등이 있음.

28) 봉천 군벌 정권 시기 대두 교역과 정책에 대해서는 安富步, 2009, 「國際商品としての滿洲大豆」,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291~327쪽 등이 있다.

발되기 시작했지만,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오오쿠라공사(大倉公司)를 통해서 탄광을 경영하면서 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다. 양국 간의 몇 차례 지지부진한 회담이 오간 이후 1910년 5월에 청과 일본은 중일합판 방식으로 본계호 탄광을 경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과 일본은 각각 100만원을 자본금으로 각출하여 '본계호상판매광유한공사'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탄광을 경영하고, 청과 일본 측에서 기업의 총책임자 1명씩을 임명하며, 합판 기한은 30년으로 하고 청 정부는 그 기한 내에는 광세를 거둘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²⁹⁾ 이러한 본계호 탄광에 대한 중일합판 경영은 1931년 만주사변 때까지 유지되었다.

봉천 군벌 정권 역시 본계호 탄광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장작림은 1920년 중일 합판 본계호매철공사가 창립한 지 10주년을 기념하여 축사를 보냈다.³⁰⁾ 또한 한편으로는 본계호 탄광에서의 중국 측 이권을 보호하는 조치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작림은 북경 정부에 동삼성의 광산 이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것을 건의하였고, 1917년 9월에는 봉천교섭서에 일본 경찰로부터 본계호 탄광의 중국 상인들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교섭하도록 지령을 내리고,³¹⁾ 1918년 10월에는 본계호 지역의 동광을 봉천성에서 운영하기 위해 봉천 주재 일본 영사와 교섭하고자 하였다.³²⁾

물론 본계호 일대 탄광 이권을 지키고자 했던 봉천 군벌 정권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본 측 이권의 비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증가되었다. 다만 일본에게 이권 전체를 넘겨야 했던 봉천 지역의 무순 탄광이나 안산 제철소와 비교해서 본계호 탄광의 경우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는 중일합판 방식이 유지되었고

29) 蘆林, 2016, 「中日奉天礦權糾紛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26쪽.

30) 「張作霖爲本溪湖煤鐵公司十周年紀念祝詞」(1920年 5月); 郭春修, 2013, 『張作霖書信文電集』上, 北方聯合出版傳媒(集團)股份有限公司, 424쪽.

31) 「張作霖爲日警強迫本溪礦商袁占海停工給奉天交涉署指令」(1917年 12月 4日), 『張作霖書信文電集』上, 132쪽.

32) 「張作霖爲本溪銅礦留歸省辦給日駐奉總領事照復」(1918年 10月 7日), 『張作霖書信文電集』上, 299쪽.

중국 측의 이권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계호 탄광은 1910년부터 1931년까지 매년 30만 톤에서 40만 톤의 석탄과 3만 톤에서 5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였고,((표 2))³³⁾ 이곳에서 생산된 석탄 및 철광석은 무순과 안산, 조선 등지로 수출되었다.³⁴⁾ 이 시기 본계호 일대는 무순, 안산과 함께 만주 지역의 주요 공업 지대로 자리잡았다.

[표 2] 본계호 탄철광의 석탄 및 생철 생산량(1910~1930)

(단위: 톤)

연도	석탄	철
1910	58,000	
1911	90,352	
1912	185,199	
1913	270,782	
1914	301,014	
1915	275,778	29,438
1916	322,625	49,211
1917	438,009	37,971
1918	374,965	44,965
1919	416,994	78,841
1920	439,100	48,845
1921	338,000	31,017
1922	285,000	0
1923	373,000	24,338
1924	450,000	51,950
1925	400,000	50,000
1926	415,000	51,000
1927	398,000	50,500
1928	490,000	63,030
1929	521,000	76,300
1930	582,000	85,059

本溪鋼鐵公司史志編輯部, 『本溪煤鐵公司與大倉財閥』, 1988, 29쪽

33) 本溪鋼鐵公司史志編輯部, 1988, 『本溪煤鐵公司與大倉財閥』, 29쪽.

34) 本溪鋼鐵公司史志編輯部, 1988, 위의 책, 31쪽.

봉천 군벌 정권은 본계호 탄광의 증일합관 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만주 지역의 광산 자원을 직접 개발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이 직접 개발을 추진한 대표적인 광산들은 팔도호(八道濠) 탄광, 복주만(復州灣) 탄광, 서안현 탄광, 길림 송화강 학강(鶴岡) 탄광, 조양현 북표(北票) 탄광 등이 있다.

팔도호 탄광은 봉천 서쪽의 흑산현(黑山縣)에 있는 탄광으로 1919년 장작림 일가가 50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1922년 독일로부터 전기로 2대를 도입하여 전력으로 채탄 공정을 진행하였다.³⁵⁾ 복주만 탄광의 경우 1919년 대련의 상인 주문귀(周文貴)가 120만 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나, 1928년 경영이 어려워지자 장학량이 개인 자금으로 탄광을 사들인 후 봉천광무국에 귀속시켰다.³⁶⁾ 서안현 탄광은 1926년 봉천 군벌 휘하의 봉해철로공사(奉海鐵路公司), 봉천병공창(奉天兵工廠), 봉천성 재정은행 등의 기구와 상인들이 합자하여 개발하였고, 증기용광로 15개가 있었으며, 연간 석탄 생산량이 6만~15만 톤이었다.³⁷⁾ 송화강 유역 학강 탄광은 1916년 상인 심송년(沈崇年)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1919년 장작림의 지시를 하여 관상합관의 방식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4년 흑룡강성 독군 오준승(吳俊升)이 소련 측과 합자하여 학강철로를 만들었고, 1929년에는 하얼빈으로 학강매광공사의 본부를 옮기면서 개발의 규모도 확장되었다. 당시 학강 탄광은 노천광이 4곳에 광부가 2,000명이었다.³⁸⁾ 이와 같이 봉천 군벌 정권은 자체적으로도 탄광 개발에 나섰는데, 봉천 군벌 정권에서 경영한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³⁹⁾

35) 馬尙斌, 2000, 『奉系經濟(奉系軍閥全書 5)』, 遼海出版社, 88~89쪽.

36) 馬尙斌, 2000, 위의 책, 90쪽.

37) 馬尙斌, 2000, 위의 책, 90~91쪽.

38) 馬尙斌, 2000, 위의 책, 91~93쪽.

39) 馬尙斌, 2000, 위의 책, 96쪽.

[표 3] 봉천 군벌 경영 주요 탄광의 연간 생산량

(단위: 만 톤)

	北票	鶴崗	西安	八道壕	阿金溝	復州灣	奶子山
1922	2.5		5.0		4.5	4.1	
1923	2.9		5.7	7.0	3.4	7.5	
1924	6.3		6.0	6.5	5.9	9.4	
1925	14.4		6.0	6.4	4.1	11.3	
1926	15.3	0.3	6.0	6.8	1.6	12.6	
1927	28.6	17.9	8.0	6.2	9.5	13.6	
1928	36.7	9.6	11.8	6.6	6.0	17.3	
1929	40.6	19.9	15.4	7.7	6.0	21.5	8.2
1930	50.9						

馬尙斌, 『奉系經濟(奉系軍閥全書 5)』, 遼海出版社, 2000, 96쪽

봉천 군벌 정권의 광산 개발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본계호 탄광의 경우와 같은 중일합판의 방식과 군벌 정권 차원에서 상인들과 협력하는 자판(自辦), 혹은 관상합판의 방식 2가지 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청말부터 추진되었던 중국 측의 만주 지역 광산 개발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봉천 군벌 정권은 일본의 이권 개입 속에서 본계호 탄광에 대해서 최대한 중일합판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며, 자체적으로도 장작림-장학량 일가를 비롯한 정권 간부들이 중국 상인들과 자본을 투자하여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물론 이러한 봉천 정권의 시도는 일본 측의 강력한 이권 개입과 자금의 부족 등으로 곤경을 겪고 장작림의 폭사 사건 및 만주 사변으로 실패로 귀결되었으나, 근현대 만주 지역의 한인 정권이 자체적으로 광공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 4장에서 서술하겠지만 광공업 발전을 통해 만주 지역의 도시화와 국가 지배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봉천 군벌 정권의 삼림 개발

봉천 군벌 정권의 자원 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책은 삼림 정책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림 자원은 광산 자원과 함께 청말부터 중요한 자원으

로 주목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 역시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채벌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봉천 군벌 정권 역시 만주 지역의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봉천 군벌의 적극적인 삼림 개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28년 2월 포고된 「대원수가 포고하는 삼림조례령(大元帥布告森林條例令, 이하 '삼림조례)」이었다. 봉천 군벌 정권이 포고한 「삼림조례」는 크게 10장 75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⁴⁰⁾

[표 4] 1928년 봉천 군벌 삼림조례의 내용

章	분류	條	대략의 내용
1	총강(總綱)	1~2	법령의 간략한 요지 설명
2	국유삼림(國有森林)	3~9	국유림의 귀속 요건 및 관리 문제
3	보안림(保安林)	10~22	보안림(방재림)의 편입 및 보호 문제
4	공유/사유림의 감독 (公有林私有林之監督)	23~28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관리와 개간 및 벌목 규제 문제
5	임업협사(林業協社)	29~35	삼림 개발과 관리를 위한 임업회사의 설립과 그 규정
6	토지 사용 및 수용 (土地之使用及收用)	36~46	삼림 벌채, 운반 시 지주와의 법적 문제 및 보상 문제
7	삼림경찰(森林警察)	47~49	삼림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경찰의 직무 규정
8	장려(獎勵)	50~58	삼림 개발 및 경영에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9	벌칙(罰則)	59~73	불법 채벌, 방화 등 삼림 보호 규정에 위배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10	부칙(附則)	74~75	삼림조례의 실시일 및 유효 기간 규정

봉천 군벌 정권의 삼림 정책은 청조와 중화민국 정부가 동삼성 지역에서 추진하였던 삼림 정책을 계승하였다. 청은 1907년 「임업개발규칙(林業開發規則)」을 포고하고 임업총국을 길림에 설치하였다.⁴¹⁾ 청을 뒤이은 중화민국 정부 역시 1912년 「중화민국정부임업요강(中華民國政府林業要綱)」 및 「동삼성국유림발방규칙(東三省國有林發放規則)」을 반포하여 동삼성 삼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외국의 이권 개입을

40) 「大元帥公布森林條例令」(1918年 2月 29日), 『張作霖書信文電集』下, 825-833쪽.

41) 安富步, 2009, 『滿洲』의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50쪽.

배제하려고 하였고, 1915년 하얼빈에 동삼성임야총국(東三省林野總局)을 두고 봉천, 길림, 닝구타에 그 분국을 두어 만주 지역의 삼림을 관리할 행정 기구를 마련하였다.⁴²⁾

위의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1928년 봉천 군벌에서 포고한 「삼림조례」는 국유림에 대한 관리, 방재(防災)를 위한 보안림의 설정과 관리, 임업공사의 설립, 삼림 보호를 위한 삼림경찰의 배치 등 삼림 관리에 대한 비교적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체제를 갖추었다. 이 「삼림조례」는 봉천 군벌 정권이 청의 「임업개발규칙」과 중화민국의 「임업요강」, 「동삼성국유림발방규칙」 등의 삼림법 체제를 계승하여 만주 지역의 삼림 관리 체제를 정립하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봉천 군벌 정권은 위와 같이 삼림 관리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1920년대 일본의 만주 진출이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임업 개발을 추진하였다.

청말부터 만주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삼림 지역은 압록강 유역이었다. 압록강 유역은 청과 조선의 변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청(중국)-조선(한국)-일본-러시아의 국가 권력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삼림 자원에 대한 이권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896년부터 러시아가 이 지역의 삼림 개발을 시작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군용 재목을 확보하기 위해 압록강 하류 유역의 삼림을 채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05년 청조-일본 간의 「만주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부속 협정의 11조인 ‘청조-일본 합판 경영에 의한 공영 재목회사를 설립한다.’는 조항에 따라 1908년 안동현에 본부를 둔 압록강채목공사(鴨綠江採木公司)가 설립되었다.⁴³⁾ 압록강채목공사는 본계호매철공사(本溪湖煤鐵公司)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말까지는 중일합판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일본에게 경영권

42) 安富步, 2009, 위의 책, 50~51쪽.

43) 청말 압록강 유역 목재 채벌과 ‘압록강채목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菅野直樹, 2000, 「鴨綠江採木公司と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關係の変遷」, 『國史學』 172; 菅野直樹, 2004, 「鴨綠江沿岸森林利權問題と日本陸軍」, 『軍事史學』 40; 姜麗, 2007, 「鴨綠江流域森林資源與安東縣木材中心市場的形成(1876-1928)」,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김택경, 2023, 「清末 鴨綠江採木公司의 설립을 둘러싼 淸과 日本의 분쟁과 협상」, 『동국사학』 76 등을 참고할 것.

이 완전히 이전되었고 1940년까지 일본의 만주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 역시 중일합판 방식으로 압록강채목공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과 압록강채목공사의 관계는 일종의 ‘공생’ 관계였다. 뒤의 4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장작림의 봉천 군벌 정권은 1916년~1917년 맹은원(孟恩遠)의 길림 군벌을 제압하고 세력을 길림성 일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오쿠라 기업과 압록강채목공사가 자금을 출자하여 안동현에 창업한 압록강제제무한공사(鴨綠江製材無限公司)의 길림성 분공장 설립 및 제제 운반을 위한 철로 건설을 후원하였다.⁴⁴⁾ 또한 압록강채목공사 측은 1920년대 말까지 봉천 정권 측에 이윤을 상납하였는데 1926년에는 수익 잉여금 북양용은(北洋龍銀) 64만 6,418원 중에 16만 6,326원을 봉천재정청에 상납하였고, 1928년에는 수익 잉여금 북양용은 18만 989원 중에 봉대양(奉大洋) 14만 8,806원을 봉천재정청에 상납하였다.⁴⁵⁾

봉천 군벌 정권이 만주 지역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지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친일 정권’으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1920년대 만주 전역의 패권을 장악한 봉천 군벌 정권은 만주 지역에서의 일본의 진출과 이권 침탈을 방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입업 방면에서도 봉천 군벌 정권은 1920년대부터 길림 지역으로 진출한 화삼제재공사(華森製材公司), 풍재고분유한공사(豊材股分有限公司) 등의 일본계 기업들의 삼림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길림의 삼림 이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길림 동부의 중동철도 소유의 삼림을 관리하던 중동해림실업공사(中東海林實業公司)를 압박한 것인데 장작림 휘하 길림성 정부는 그 공사가 소유 삼림장에서 채벌할 수 있는 양을 2,000그루로 한정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공사의 소유 삼림장을 점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중동해림실업공사의 경영은 정지되기에 이르렀다.⁴⁶⁾

위와 같이 봉천 군벌 시기 만주 지역 자원 개발의 양상을 광산 개발과 삼림

44) 菅野直樹, 2003, 「孟恩遠吉林省政權と日本--軍閥の延命策と林業」, 『日本歴史』, 吉川弘文館, 74~75쪽.

45) 孔經緯, 1989, 『奉系軍閥官僚資本』,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50쪽.

46) 菅野直樹, 2003, 「孟恩遠吉林省政權と日本--軍閥の延命策と林業」, 『日本歴史』, 82쪽.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봉천 군벌 시기 만주 지역은 일본의 진출과 이권 침탈로 인하여 봉천 군벌이 자체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대체로 증일합관 방식으로 자원 개발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계호매철공사와 압록강채목공사였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 봉천 군벌은 팔도구 광산, 학강 광산 등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을 시도하였고, 1928년 「삼림조례」를 발표하여 임업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일본 기업들의 이권 개입 확대를 방해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은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만주 지역에서 나름의 근대적인 자원 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IV. 봉천 군벌의 자원 개발과 지역 지배 강화

봉천 군벌 정권의 자원 개발 정책은 단순히 만주 지역의 자원 개발 그 자체에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자원 개발을 통해서 만주 지역의 상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만주 변경 지역 사회로 침투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원 개발과 지역 사회의 발전, 국가 권력의 확대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청말 만주 변경 지역의 재편과정에서도 이미 잘 드러난다. 청말 만주 지역의 경우, 청 제국의 ‘변경’이면서 제국들의 이권 경쟁이 첨예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부터 청조는 동북 변경의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봉금체제를 해제하고 한인들의 이민실변과 황무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1905년부터는 동북 신정을 통해 그동안 장군체제였던 만주 지역의 행정체제를 중국 내지와 동일한 성-주-현 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한 청말의 만주 지배 강화와 체제 전환 과정에서 광산과 삼림 등의 자원 개발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청말 길림과 흑룡강 지역 중 흑룡강 중상류 지역의 막하, 쿠마르(호마), 송화강 유역의 삼성(의란), 밀산, 두만강 유역 훈춘 등지는 러시아와 접경지대로 군사적

요충지면서도 1880년대부터 금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청조는 이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금광을 개발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광산 주변에 도시 시설과 군사 시설과 교통 시설을 갖추었고,⁴⁷⁾ 최종적으로 이 지역들에 현을 설치하였다. 또한 압록강 하류 유역의 국경 지대이자 만주 굴지의 목재 시장이었던 대동구 지역에도 안동현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국가 통제를 강화하였다.⁴⁸⁾ 이처럼 청말부터 광산이나 삼림 자원 개발은 만주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지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봉천 군벌 정권 역시 청말부터의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자원 개발을 지렛대로 삼아서 만주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고 정권의 지배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은 만주 지역을 근거로 한 독립적인 정권으로서, 자신들의 행정력과 군사력으로 지역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앞서 3장에서 보았듯이, 자체적으로 만주 지역에서 자원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 몽강현 삼림 이권 문제와 길림성 장악

봉천 군벌 정권은 만주 지역 전역의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자원 개발 문제를 권력 확장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3장에서도 언급한 압록강제재무한공사의 길림성 확장을 둘러싼 길림 군벌 맹은원과 의 갈등이었다. 봉천의 장작림은 길림의 삼림 개발 문제를 활용하여 맹은원의 권력을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1919년 장작림이 최종적으로 동삼성의 권력을 장악하기 전 만주 지역은 봉천의 장작림 이외에 흑룡강과 길림 지역에 북양정부가 임명한 독군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길림 독군이었던 맹은원은 장작림의 강력한 라이벌로서, 1918년에는 청조 부흥파였던 종사당(宗社黨)과 결탁하여 장작림을 암살하려고까지 하였다.⁴⁹⁾

47) 청말 동북 국경 지대의 금광 개발과 변경 지역의 도시화 및 방어 강화에 대해서는 謝春河; 吳春娟, 2010, 「黃金經濟背景下清末民初黑龍江中上遊右岸區域近代化初探」, 『黑龍江學院學報』; 송인주, 2023, 「청말 동북 변경 재구축과 광무(鑛務), 1860~1911」, 46-91쪽.

48) 김선민, 2017, 「19세기 압록강 유역의 환경과 개발」, 『史叢』 91, 217쪽.

49) 菅野直樹, 2003, 「孟恩遠吉林省政權と日本一軍閥の延命策と林業」, 『日本歴史』, 74쪽.

맹은원은 만주를 둘러싼 장작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맹은원 정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길림 지역의 풍부한 삼림 자원이었다.

맹은원 길림 군벌 정권은 일본 기업들이 압록강 유역에 임업 공사들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에 일본 자본의 임업 공사들이 길림 방면 압록강 유역에 우후죽순 건립되었다. 맹은원 정권하에서 건설된 일본계 임업공사는 부녕조지고분유한공사(富寧造紙股份有限公司), 화삼제재공사(華森製材公司), 황천채목공사(黃川採木公司), 풍재유한공사(豐材有限公司), 경운공사(慶雲公司) 등이 있었다. 맹은원 정권은 길림에 일본계 임업공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장작림 봉천 군벌에게 대항할 군비를 지원받고자 하였다.⁵⁰⁾

[그림 1] 몽강현 일대 삼림 지도

(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編, 1928, 「松花牡丹江上流森林分布圖」, 『吉林省之林業』)



그러한 상황에서 장작림 봉천 정권과 압록강채목공사의 지원을 받은 압록강제재무한공사가 길림 지역에 분공소를 건설하고 길림 지역의 재목을 압록강 운반하는 레일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맹은원 정권 측은 압록강제재무한공사의 사업 확장에 경계하면서, 길림성정부의 유력자를 통해 압록강제재무한공사가 매수하려는 토지를 구매하고, 길장철로국을 통해서 압록강제재무한공사에 대한 소유지 대출을 거부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펼쳤다.⁵¹⁾ 이러한 압록강제재무한공사의 길림으로의 사업 확장 문제는 장작림 정권과 맹은원 정권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것에 더해서 장작림과 맹은원 측은 길림성 몽강현(濛江縣)의 삼림 개발을 둘러싸고서도 긴장 관계를 이어 나갔다. 몽강현은 송화강 상류 유역으로, 길림성에 속해 있었으나 봉천과 길림의 경계에 위치하였고 삼림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현의 관할을 두고 봉천 측과 길림 측이 경쟁하였다. 봉천 측의 임업자들은 압록강채목공사의 자본을 빌려서 몽강현의 삼림을 채벌하였고 압록강채목공사는 이 무렵 몽강현에 운목국(運木局)을 설치하고 송화강 상류의 목재를 운반할 경편철도를 부설하고자 하였고, 장작림 측은 압록강채목공사의 길림 진출을 통해서 몽강현을 봉천 측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⁵²⁾ 이러한 장작림 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맹은원 측은 일본의 미쓰이 기업에 몽강현 삼림이권을 담보로 200만 엔의 차관을 계약하였고 일본 측은 몽강현에 화삼제재공사를 발족하였다.⁵³⁾

그러나 1916년 맹은원이 가담한 장훈의 복벽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휘하에 있던 길림군이 그의 명령과는 다르게 일본 관동군과 충돌하는 악재가 뒤따르면서 결국 맹은원은 길림에서 실각하고 장작림 봉천 군벌 정권이 길림을 장악하게 되었다. 장작림은 길림을 장악한 이후 맹은원 정권하에서 일본 기업들과 길림의 삼림 개발을 담보로 차관을 계약했던 길림 임무국 국장 호종영(胡宗瀛)을 축출하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증동해림실업공사의 경영을 방해했다.⁵⁴⁾ 이렇듯 장

51) 菅野直樹, 2003, 위의 논문, 75쪽.

52) 菅野直樹, 2003, 위의 논문, 76-77쪽.

53) 菅野直樹, 2003, 위의 논문, 78-79쪽.

작립 봉천 군별 정권은 길림으로의 세력 확장 과정에서 삼림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봉천 군별 정권이 만주 전역의 지배권을 확립한 1920년대에도, 봉천 군별 정권의 지배 체제 확립 과정은 자원 개발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1920년 전후로 만주 지역에서 철도 부설과 광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도시화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석탄의 도시(炭の都)로 불리는 무순이나 철의 도시(鐵の都)라고 불리는 안산뿐만 아니라, 변외(邊外)로 불렸던 길림과 흑룡강의 여러 지역에서도 인구가 급증하고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공업 도시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만주 지역의 도시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봉천 군별 정권도 권력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사례가 봉천 군별 시기 탄광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봉천성 본계현과 흑룡강성의 학강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본계호 탄광 경영과 본계현 행정 체제 정비

봉천성 본계현은 본계호 일대에 설치된 현이다. 본계호 일대는 청대 봉천과 길림의 경계를 가르는 유조변의 변문(邊門)이 위치하였고, 청의 왕공 귀족들의 장원들이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나 1905년 이후 러일전쟁 및 일본의 남만주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계호 일대에서 중일합판 경영 방식으로 탄광과 철광이 개발되고, 남만주 철도의 지선인 안봉선 철도가 경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계호 일대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인구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본계현의 인구는 19만 명이었는데, 그 후 2년 만인 1909년에는 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⁵⁴⁾ 그러한 공업화와 인구 증가의 흐름 속에서 1907년 청조는 본계호 일대에 '본계현'이라는 새로운 현을 설치하였다.⁵⁵⁾

본계현은 탄광 이권을 두고 청과 일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이었다. 따라

54) 菅野直樹, 2003, 위의 논문, 78-79쪽.

55) 沈玉成 主編, 1995, 『本溪城市史』社會科學出版社, 42쪽.

56) 沈玉成 主編, 1995, 위의 책, 17쪽.

서 청조는 본계현을 설치하면서 본계호 탄광 일대에 국가 권력을 확장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본계현은 8구, 185향, 364촌으로 구획되었고, 1910년에는 현의 사무를 위해 행정, 사법, 회계 3과가 설치되었으며 탄광 관리를 위한 광무공사가 설치되었다.⁵⁷⁾ 또한 현의 치안을 위해 순경국을 설치하는 한편 현의 방비를 위해 본계현성 내에는 포도영을 두고, 현성 밖과 유조변의 변문이었던 감창 변문에도 봉천의 연군과 만주 팔기 수십 명이 배치되었다.⁵⁸⁾

봉천 군벌 정권은 청조의 본계현 지배 체제 구축 과정을 계승하여, 본계현에 대한 권력 강화 작업과 지배 구조 재편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본계호 일대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안봉선 철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본계현 내 자국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켰고 그 수를 점차 증강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 역시 이에 대응하여 본계현 주둔 병력을 증가시켰다. 1915년에는 우심태 지역과 감창 변문 지역에 4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켰고, 다시금 감창 지역에 1922년에는 129명, 1925년에는 146명, 1930년에는 106명을 증파하여 군사력을 보강하였다.⁵⁹⁾

봉천 군벌 정권 시기 본계현에서 이루어진 지배 강화 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작업은 도로망 구축 사업이었다. 1918년 장작림은 봉천 전역의 도로망을 새롭게 정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 훈령에 따라 봉천성 경내의 도로망이 정교하게 구축되었는데, 본계현 일대의 도로망도 새롭게 구축되었다. 당시 본계현은 안봉선 철도가 지나는 본계호역과 현청이 위치하고 있는 소시(小市) 구역에 주로 도로가 위치하였는데, 이 도로망을 주변 향촌까지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의 도로망 정비 작업의 결과 1931년에 통계에 의하면, 본계현 내의 주요 핵심 지역을 잇는 큰 도로 11개, 그 아래의 향과 향을 잇는 도로 27개, 촌과 촌 사이를 잇는 도로 20개가 정비되었다.⁶⁰⁾ 그러한 도로망 구축 작업을 통해 봉천 군벌

57) 송인주, 2023, 「청말 동북 변경 재구축과 광무(鑛務), 1860~1911」,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8-109쪽.

58) 송인주, 2023, 위의 논문, 109쪽.

59) 本溪縣志編纂委員會, 1983, 『本溪縣志』, 579쪽; 송인주, 2023, 위의 논문, 109-110쪽.

60) 本溪縣志編纂委員會, 1983, 위의 책, 303쪽; 송인주, 2023, 위의 논문, 110쪽.

정권은 현의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 사회 하부에까지 권력을 침투시키고자 했다.

봉천 군벌의 지역 지배 확립과 본계호 탄광 경제의 발전 속에서 1920년대 본계현은 사회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본계호 탄광에서 일하던 광산 인부의 숫자는 1911년 1,500명에서 1930년에는 8,624명으로 증가했으며, 본계현의 인구도 1909년 22만 명에서 1931년 3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⁶¹⁾ 또한 본계현 내의 상점의 규모도 급증하여 1924년까지 본계현 내의 상점은 총 76개에 불과했지만, 봉천 군벌 시기 탄광 개발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1925년 총 272개, 1929년에는 총 524개에 이르렀다.⁶²⁾ 봉천 군벌 정권 시기 탄광 개발을 통해 본계현은 무순, 안산 등과 함께 요동반도 일대 주요 공업 도시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본계현의 위상은 만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도 변하지 않아서 현재 중국 동북 지역의 굴지의 철강 기업인 '번시철강(本溪鐵鋼)'이 위치하고 있다.

3. 학강 탄광 개발과 송화강 하류 지역 사회 재편

흑룡강성 학강의 경우에도 봉천 군벌 시기 탄광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업도시로 성장한 지역이었다. 학강 일대는 송화강 하류의 황무지 지역에 불과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전후로 이 지역에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송화강 하류의 변경 지대에는 광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학강 탄광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16년 상인 심승년에 의해 경영되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19년 장작림이 이 탄광을 흑룡강성 정부의 관관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이후부터였다. 학강 탄광의 개발은 봉천 군벌 정권의 흑룡강성 장악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19년 봉천 군벌 정권이 만주 전역을 장악한 이후, 장작림의 심복 오준승(吳俊升)이 흑룡강성의 독군이 되었다. 오준승은 이후 7년 동안 흑룡강성의 실권을 잡

61) 沈玉成 主編, 1995, 『本溪城市史』, 社會科學出版社, 42쪽.

62) 沈玉成 主編, 1995, 위의 책, 21-23쪽.

고 흑룡강성의 개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오준승이 흑룡강성에서 집권하는 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발 정책은 철로 부설과 광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준승은 그의 집권 기간 내에 흑룡강성 경내에 총 6개의 철로를 수축하였다. 흑룡강성의 관민합판으로 수축된 철로는 제극철로(齊克鐵路), 학강철로(鶴崗鐵路), 양제철로(昂齊鐵路), 호해철로(呼海鐵路) 총 4개였고, 도양철로(洮昂鐵路)는 중일합판으로, 목릉철로(穆稜鐵路)는 중아합판으로 수축되었다.⁶³⁾ 이러한 1920년대 흑룡강성 정부의 철로 부설은 봉천 군벌 정권의 적극적인 만주 지역 철로 부설과 관리 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작림은 1924년 봉천 정권 차원에서 만주 지역 철로를 관리하고 새로운 철로를 부설하기 위하여 '동삼성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주 지역의 철로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하였다.⁶⁴⁾ 오준승 역시 이러한 봉천 정부의 계획에 호응하여 흑룡강 지역에서의 새로운 철로들을 부설한 것이다.

위와 같은 1920년대 흑룡강성 철로 부설 중에서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학강철로라고 할 수 있다. 학강 철로는 학강 탄광의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부설된 철로였고, 송화강 하류의 연강구(蓮江口)를 기점으로 하고 학강 홍산 탄광을 종점으로 하는 56km의 철로이다. 학강철로는 1924년부터 부설 계획이 있었는데, 흑룡강성 독군 오준승은 처음에 소련의 중동철도관리국장 에스트라모프와 협의하여 학광 탄광의 석탄을 담보로 소련 측에서 철로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봉천 군벌 정부 측과 소련 측이 철로 관리 문제로 이견을 보여서 협의가 잠시 중단되었다. 1925년 8월 오준승이 소련의 신임 중동철도관리국장 이모포프와 다시 협상하여 소련 측이 건축재료와 차량을 제공하고 학강매광 공사 측이 매년 중동철로 측에 석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철로 부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학강 철로는 1926년 5월 기공하여 같은 해 11월 완공하였고, 1927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하였다.⁶⁵⁾

봉천 군벌 시기 흑룡강성 정부의 학강 탄광과 철로 개발을 통해 흑룡강 변경

63) 趙微微, 2014, 「吳俊升主政時期黑龍江鐵路建設及其影響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14쪽.

64) 송한용, 2006, 「1920년대 동북군벌의 철도정책」, 『역사학연구』 27, 319~324쪽.

65) 송한용, 2006, 위의 논문, 327~328쪽.

황무지에 불과했던 학강 일대와 그 주변 역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1918년 학강 탄광이 처음 개발되기 시작할 때 그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50명에 불과했으나, 흑룡강성 정부에 의해 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후 1929년에는 광부가 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⁶⁶⁾ 탄광 주변에는 상점과 거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 가목사 지역의 상인이 자본금 3만 원으로 학흥춘잡화점(鶴興春雜貨店)을 설립하였고, 이후 공리원(公利園), 금창태(金昌泰), 동취성(同聚成) 등의 상점들이 생겨났다.⁶⁷⁾ 학강 일대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구도 새롭게 설치되어 1929년 3월에 탄광 관리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흥산진(興山鎮)을 두어서 그 일대의 인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⁶⁸⁾

학강 탄광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의 배후 도시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가목사(佳木斯)였다. 가목사 지역은 1888년 청조 당국에서 동흥진(東興鎮)을 설치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고民国 초기 길림성 정부는 이곳에 화천현을 설치하였다.⁶⁹⁾ 다만 가목사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전후 학강 탄광과 오동하 금광이 개발되면서부터였다. 1918년 가목사현의 성벽과 성문이 설치되면서 행정 구획이 정비되었고, 1920년에는 상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161개였는데, 이는 1917년 79개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었다.⁷⁰⁾ 이후 가목사는 학강 탄광과 송화강 하류 지역을 잇는 수운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면서 1929년 인구가 4만 명에 이르렀고, 1931년 가목사 시내에는 공장이 110개, 21개 업종의 266개의 점포가 위치하였다.⁷¹⁾

1920년대 학강 탄광과 가목사 일대가 경제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당시 그 일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탕원현(湯原縣)의 규모와 행정력도 증대되었다. 탕원현

66) 鶴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0, 『鶴江市志』, 黑龍江人民出版社, 149쪽.

67) 취샤오판 지음, 박우 옮김, 2016,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319쪽.

68) 鶴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0, 『鶴江市志』, 黑龍江人民出版社, 8쪽.

69) 취샤오판, 2016,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317쪽.

70) 취샤오판, 2016, 위의 책, 318쪽.

71) 취샤오판, 2016, 위의 책, 318쪽.

은 1905년 현이 설치되었으나 1910년대는 행정력이 미비하여, 지역 내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1914년7월에는 현 임업국의 목세 징수에 반발하여 별목업자들의 우두머리인 목파(木把)들이 저항하는 사건도 있었고,⁷²⁾ 같은 해 8월에는 향민 유태(劉泰) 등 150명이 초소를 습격하여 관에서 관리하는 소금을 약탈하는 사건도 있었다.⁷³⁾ 또한 당시 “쌍변(雙辨)”이라는 비밀 결사가 현민들을 동요시키고 피해를 주는 등 토비 문제가 존재하였다.⁷⁴⁾

봉천 군벌 정권은 이 일대를 장악하고 학강 탄광을 개발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1923년 봉천 군벌의 흑룡강성 수란도(綏蘭道) 소속 유격대 1개 영 126명이 주둔하였고, 1924년에는 수란도 소속 기병 독립연대 47명이 배치되었다. 봉천 군벌 정권 말기인 1930년에는 흑룡강성 보안대 7대대 840명이 주둔하였다.⁷⁵⁾ 또한 1925년 탕원현의 상단에서는 “군경을 보조하고 시가지를 유지하며 어지러운 비적들을 진압하기 위한” 90명의 상단(商團)을 조직하여, 30명은 현성 내에 머물고 60명은 학강 등 3곳에 주둔케 하였다.⁷⁶⁾ 탕원현에서의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봉천 군벌 정부의 흑룡강성 정부는 송화강 하류 학강 탄광 일대의 지역 사회 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은 위와 같이 만주 지역 권력 장악 과정에서부터 자원 개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만주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봉천 군벌 정권의 자원 개발과 지역 지배 강화 정책은 청말부터 보이는 변경 지역 자원 개발의 흐름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 역시 19세기 중엽 만주 지역의 지배력이 약화 되자, 흑룡강 막하 등의 국경 지대 광산 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광산 자원 채굴뿐만이 아니라, 이민실변과 행정 구역 설치, 군대 파견 등 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강화를 통한 변경 지배 재구축을 꾀하였다. 봉천 군벌 정권 역시 본계호 탄광이나 학강

72) 陳凡舞,王文石 主編, 1992, 『湯原縣志』, 黑龍江人民出版社, 16쪽.

73) 陳凡舞,王文石, 1992, 위의 책, 16쪽.

74) 陳凡舞,王文石, 1992, 위의 책, 16쪽.

75) 陳凡舞,王文石, 1992, 위의 책, 294쪽.

76) 陳凡舞,王文石, 1992, 위의 책, 295쪽.

탄광 등의 자원 개발을 통해서 광산 자원을 장악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권력을 만주 지역 사회 깊숙이 침투시키고 낙후된 변경 지역을 근대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V. 맺음말

1928년 6월 4일, 일본 관동군에 의해 봉천 황고둔 철로에서 장작림이 폭사했다. 장작림 사후 그의 아들 장학량이 봉천 군벌 정권의 지도자가 되어 1928년 12월 29일 국민당 정부와 손을 잡고 일본의 만주 지역 진출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해 3월 만주국 정부를 세우면서 1920년대 만주에서 군림했던 봉천 군벌의 시대는 종결되었다. 이로써 봉천 군벌 정권이 만주 지역에서 시도하였던 자원 개발 정책도 중단되었다.

봉천 군벌 정권의 만주 지역 지배 기간은 10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고 일본의 이권 개입으로 자체적인 자원 개발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봉천 일대의 일부 광산은 장작림-장학량 부자나 장종창 등의 봉천 군벌 정권 지도층의 개인 명의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서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봉천 군벌 정권은 자신의 정권 유지와 권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후 만주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봉천 군벌 시기 자원 개발은 대체로 중일합판, 중리합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계호매철공사와 압록강채목공사 등이다. 이러한 중외합판 방식의 자원 개발은 청말부터 여러 제국의 자원 이권 쟁탈전이 펼쳐졌던 만주 지역의 역사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봉천 군벌 정권은 기존의 중외합판의 경영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측의 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했고, 중외합판 기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려는 시도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압록강채목공사와 압록강제제공사의 길림 지역 확장을 지원

하여 길림 군벌의 세력을 축소하려고 했던 사례이다. 또한 봉천 군벌 정권이 길림 지역을 장악한 이후 일본 기업들의 길림 지역 삼림 개발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도 봉천 군벌 정권이 그저 일본의 '첨병'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봉천 군벌 정권은 중외합관의 개발 방식 외에도 자신들이 직접 만주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장작림과 왕영강을 비롯한 봉천 군벌 정권의 핵심 지도층은 만주 지역의 광산과 삼림 자원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을 자주 천명하였고, 만주 지역의 한인 상인들과 협력하여 봉천의 팔도구, 서안현, 복주, 길림 학강 등의 탄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1928년 장작림의 훈령으로 반포된 봉천 군벌 정권의 「삼림조례」 역시 봉천 군벌 정권이 만주 지역의 삼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28년 「삼림조례」는 청조와 중화민국의 북양정부에서 반포했던 삼림법을 계승하여 국유림, 보호림, 사유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삼림들과 체계적인 관리 법안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봉천 군벌 정권이 만주 지역의 독자적 정권으로서 그들의 법제와 질서를 통해 만주 지역의 자원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봉천 군벌 정권은 만주 지역에 대한 권력 확장과 지배 재편 과정에서도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역사적으로 만주 지역의 정치, 문화적 중심은 봉천 일대였고, 길림과 흑룡강 지역은 배후의 변경 지대였다. 봉천 군벌 역시 봉천을 정치적 중심지로 삼아 그 권력을 변경인 길림과 흑룡강 지역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자원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봉천의 장작림이 길림의 맹은원을 제압하기 위해 송화강 유역 몽강현 일대의 삼림 이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장작림의 심복이자 흑룡강성 독군이었던 오준승이 학강 탄광과 그 일대를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본계호나 학강 탄광의 사례처럼 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철도와 도로를 정비하고 행정 기관을 설치하거나 군경을 배치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모습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봉천 군벌 시기의 자원 개발은 만주 지역의 사회와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청말부터 탄광 개발이 이루어져 오던 본계호 탄광 일대는 봉천

군벌 시기 중일합판 경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철로와 도로망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인근의 무순, 안산과 함께 봉천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자리잡았다. 또한 송화강 하류의 학강 탄광 일대도 봉천 군벌 시기 본격적으로 탄광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 배후 도시인 가목사, 탕원현도 각각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이 시기에 공업 도시로 발달한 본계호 일대와 학강 일대는 만주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만주 지역의 중요 광산 도시로 발전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에도 본계시, 학강시로 승격되면서 만주 지역에서 공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봉천 군벌 정권은 국민당-중국공산당의 근현대 중국의 '정통 사관'에서 동북 변경의 군벌로 치부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한간(漢奸)'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또한 만주 지역사의 차원에서 청과 만주국 사이에 있는 과도사적인 시기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봉천 군벌 정권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주 진출과 이권 침투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만주 지역의 자원 개발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만주 지역에서의 독자적 지배 체제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또한 봉천 군벌 정권이 추진한 자원 개발의 유산은 이후 만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만주 지역 공업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봉천 군벌 정권이 추진한 자원 개발은 만주 지역,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

참고문헌

① 사료

중국

- 郭春修, 2013, 『張作霖書信文電集』上, 下, 北方聯合出版傳媒(集團)股份有限公司
- 國民革命軍總政治部, 1927, 『商人與奉系軍閥』
- 吉林省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1983, 『張作霖等奉系軍閥人物資料專輯(吉林文史資料選輯第4輯)』, 吉林人民出版社
- 本溪鋼鐵公司史志編輯部, 1988, 『本溪煤鐵公司與大倉財閥』
- 本溪縣志編纂委員會, 1983, 『本溪縣志』
- 沈陽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輯, 1986, 『張作霖史料專輯(沈陽文史資料 第12輯)』, 政協沈陽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辦公室
- 遼寧省檔案館, 1984, 『奉系軍閥密電(中華民國史資料叢稿-電稿)』1~6冊, 中華書局
- 遼寧省檔案館, 1990, 『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1~12冊, 江蘇古籍出版社
- 遼寧省檔案館, 1993, 『奉系軍閥密信選輯』, 檔案出版社
- 陳凡舞, 王文石 主編, 1992, 『湯原縣志』, 黑龍江人民出版社
- 鶴江市地方志編纂委員會, 1990, 『鶴江市志』, 黑龍江人民出版社
- (民國)張伯英 撰, 1992, 『黑龍江志稿』上·中·下冊, 黑龍江人民出版社

일본

- 1914, 『南滿洲ニ於ケル帝國ノ鑛業權』, 南滿洲鐵道鑛業部鑛務課
- 1933, 『(圖解)滿洲産業大系』1-5卷, 新知社
- 1918, 『滿蒙及支那ニ於ケル鉦産調査摘要』, 關東都督部 臨時産業調査局 編
- 1933, 『滿洲の鑛業』, 滿鐵經濟調査會第1部 編, 滿洲文化協會
- 1934, 『滿洲の地質及鑛産』, 遠藤隆次, 三省堂
- 1939, 『滿洲の探検と鉦業の歴史』, 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滿經濟調査所 編, 興亜書院
- 1964, 『滿洲開發四十年史』上, 下卷, 滿史會, 東京: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 1917, 『最近滿洲鉦産物概況』, 南滿洲鐵道株式會社鉦業部鉦務課

② 연구서

한국

-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만철: 일본의 싱크탱크』, 산치림
- 권성욱, 2020, 『중국 군벌 전쟁: 현대 중국을 연 군웅의 천하 쟁탈전 1895~1930』, 미지북스

- 나카미 다사오 외, 2013,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출판
노기식 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이건일, 2018, 『군벌: 중국의 군벌정치』, 삼화
취샤오판 지음, 박우 옮김, 2016,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한석정, 2016, 『만주모던』, 문학과지성사
한석정 외, 2009, 『근대 만주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 孔經緯, 1989, 『奉系軍閥官僚資本』,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郭俊勝, 2008, 『張作霖與日本關係』, 遼寧人民出版社
具本景, 1999, 『張作霖·奉系軍事集團』, 遼寧省政協學習宣傳和文史委員會
南京林業大學林業遺產研究所, 1989, 『中國近代林業史』, 新華書店
馬尚斌, 2000, 『奉系經濟(奉系軍閥全書 5)』, 遼海出版社
王鴻賓, 1989, 『張作霖和奉系軍閥』, 河南人民出版社
張祥斌, 『張作霖傳』, 吉林大學出版社
張正忠, 1997, 『東北王 張作霖』, 黑龍江人民出版社
胡玉海·裏蓉, 2005, 『奉系軍閥大事記』, 遼寧民族出版社

영미권

- Gavan McCormack, 1988, 『張作霖在東北』, 吉林文史出版社
Chi Man Kwong, 2017, *War and Geopolitics in Interwar Manchuria: Zhang Zuolin and the Fengtian Clique during the Northern Expedition*, Brill
Ronald Suleski(薛龍), 2012, 『張作霖和王永江: 北洋軍閥時代的奉天政府』, 中央編譯出版社
Victor Zatzepine,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일본

- 江夏由樹·西村成雄·中見立夫·山本有造 編, 2005, 『近代中國東北地域史研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
麻田雅文, 2014, 『滿蒙-日露中の「最前線」』, 講談社
峰毅, 2009, 『中國に繼承された「滿洲國」の産業 化學工業を中心にみた繼承の實態』, 禦茶の水書房
北野剛, 2016, 『滿蒙をめぐる人びと』, 彩流社
佐藤淳平, 2020, 『近代財政史研究: 「外省」から「地方」へ』, 東京大學出版會
上田貴子, 2018, 『奉天の近代: 移民社會における商會·企業·善堂』,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山本進, 2009, 『環渤海交易圏の形成と變容 清末民國期華北・東北の市場構造』, 東方書店
 澁穀由裏, 2017, 『馬賊の「滿洲」: 張作霖と近代中國』, 講談社
 安富步, 2009, 『「滿洲」の成立 森林の消つくと近代空間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左近幸村, 2008,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跨境史への試み』, 北海道大學出版會
 荒武達郎, 2008, 『近代滿洲の開発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③ 연구논문

한국

- 김선민, 2017, 「19세기 압록강 유역의 환경과 개발」, 『史叢』 91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김택경, 2023, 「清末 鴨綠江採木公司의 설립을 둘러싼 淸과 日本의 분쟁과 협상」, 『동국사학』 76
 董昕·조정은·홍영미, 2012, 「奉天軍閥 시기의 東三省 화폐제도」, 『만주연구』 13
 송인주, 2023, 「청말 동북 변경 재구축과 광무(鑛務), 1860~1911」,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宋漢鏞, 2004, 「直皖戰爭과 奉天軍閥의 關內進出」, 『中國史研究』 28
 송한용, 2006, 「1920년대 동북군벌의 철도정책」, 『역사학연구』 27
 송한용, 2003, 「東北大學의 設立과 運營을 통해 본 東北軍閥」, 『역사학연구』 21
 송한용, 2003, 「東北軍閥 支配下의 滿洲」, 『아시아문화』 19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계와 민족 관계」, 『만주연구』 33
 정일동, 1976, 「奉天軍閥의 形成과 展開」,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중국

- 蘆林, 2016, 「中日奉天礦權糾紛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唐進·邱洪章, 1986, 「奉系軍閥統治時期東北工人運動」, 『社會科學輯刊』
 董瑞軍, 2014, 「奉系軍閥與奉天總商會在整頓金融亂象中的合作與沖突」, 『黨政幹部學刊』
 董長芝, 1995, 「日本帝國主義對東北工礦業的掠奪及其後果」, 『中國經濟史研究』
 潘志, 2016, 「奉系軍閥時期的東北經濟開發」, 『黨政幹部學刊』
 謝春河·吳春娟, 2010, 「黃金經濟背景下清末民初黑龍江中上遊右岸區域近代化初探」, 『黑龍江學院學報』
 徐祝申, 2018, 「奉系軍閥的外交策略對日本侵略的抵制」, 『文化創新比較研究』
 安生, 1988, 「滿鐵的收買、行賄與舊中國官場的腐敗——兼談滿鐵和奉系軍閥的勾結」, 『現代日本經濟』

- 楊松濤, 2010, 「關內移民與松花江流域的城鎮近代化」,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呂健, 2001, 「試析奉系軍閥軍事力量迅速膨脹的原因」, 『遼寧商務職業學院學報』
- 王健, 2019, 「奉系軍閥統治時期東北新聞業的經濟環境」, 『蘭台世界』
- 王德朋, 華正偉, 「論奉系軍閥經濟力量的構成」,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劉朝釗, 2015, 「論奉系軍閥與東北近代化的關係」, 『蘭台內外』
- 劉朝釗, 2014, 「論奉系軍閥在東北近代化過程中的作用」, 『吉林省博物院學術文集2012-2013』
- 李瑩·高靈靈, 2016, 「近代東北地區民族工業的發展-以奉系軍閥統治時期爲主的研究」, 『大連近代史研究』
- 李雲飛, 2019, 「1928-1931年新政治空間下奉系經濟政策的傳承與嬗變」, 『哈爾濱學院學報』
- 李欣鑫·錢鳳歡, 2012, 「80年代以來奉系軍閥研究綜述」, 『黑龍江史志』
- 張晴·池瑩, 2019, 「奉系軍閥統治時期奉天財政金融整頓與啟示」, 『地方財政研究』
- 齊旭, 2013, 「奉系軍閥統治時期沈陽工業聚集區的形成與發展」, 『東北史地』
- 趙微微, 2014, 「吳俊升主政時期黑龍江鐵路建設及其影響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 陳宇, 2007, 「論奉系軍閥1917-1926年的財政, 金融改革」,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湯旭, 2017, 「奉張時期中國銀行在東北推行領券制的失敗」, 『赤峰學院學報(自然科學版)』

일본

- 高韻茹, 2021, 「東北張氏政權の鉄道政策と日滿關係」, 『愛知論叢』 111
- 郭志華, 2011, 「1920年代後半東三省における「奉天票問題」と奉天軍閥の通貨政策の轉換 為替市構造と「大連商人」の取引実態を中心に」, 『アジア經濟』 52
- 菅野直樹, 2003, 「孟恩遠吉林省政權と日本--軍閥の延命策と林業」, 『日本歴史』, 吉川弘文館
- 菅野直樹, 2000, 「鴨綠江採木公司与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關係の変遷」, 『國史學』 172
- 菅野直樹, 2004, 「鴨綠江沿岸森林利權問題と日本陸軍」, 『軍事史學』 40
- 林正和, 1970, 「張作霖軍閥の形成過程と日本の対応」, 『國際政治』 41
- 名古屋貢, 2012, 「東三省兵工廠から奉天造兵所までの変遷」, 『銃砲史研究』 373
- 澁谷由里, 1993, 「張作霖政權下の奉天省民政と社會: 王永江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52
- 王大川, 2005, 「近代滿州林業に於ける日中合弁事業」, 『調査と研究(京都大學)』 30

투고일: 2023년 07월 08일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27일

■ Abstract ■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Governance of Fengtian Warlords in Manchuria in the 1920s

Song, In-ju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of Fengtian warlords(奉天軍閥) and the rulers of Manchuria in the 1920s. Amidst an epoch marked by heightened competition between the Qing dynasty, Russia, and Japan, the fervor surrounding the the coveted mining and forests assets in the Manchuria grew.

Crafting an autonomous stronghold during Russia and Japan's military campaigns into Manchuria, the Fengtian warlords strategically maneuvered to optimize the exploitation of the country's rich mines and lush forests, amplifying their dominion over resources within the region. Even despite the constraints of Russian and Japanese influences in the country, the warlords exhibited remarkable resilience, adopting a pro-China collaborative approach that championed Chinese interests, notable in projects such as the Benxihu Coal Mine project (本溪湖炭鑛/煤鑛). Such thoughtfully calibrated strategies culminated in the acquisition of control over the Yalu and Sunghua River basins and forests, cultivating in the 1928 Forest Ordinance (森林條例). In essence, the Fengtian warlords' concerted efforts were instrumental catalyzing the emergence of contemporary Manchurian communities and industrial cities, exemplified in areas like the Benxihu (本溪湖) Lake and Heilongjiang's Hegang (鶴崗). The Fengtian warlords thus emerged as quintessential architects in the transformative evolution of modern Manchuria.

Key words: Fengtian warlords, Manchurian Strategy, Resource Exploitation, Mines, forests, Zhuang Zuolin